

박정희 추도식 달려간尹 “산업화 이룬 해안 배워야”

현직 대통령으로 첫 참석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만들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번째 만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 추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그분의 해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부터 매년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11년 만에 참석했다.

검정색 정장에 같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악수했으며 함께 옆자리에 앉아 추도식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하연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며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 놓은 철강, 발전,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방위

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튼튼한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정상과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압축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는 후일담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 자신감과 자부심을 불어넣어 줬다며 “웅크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깎집어 내서 위대한 국민으로 단합시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추모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영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들에게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는 인사로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당선인 시절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2일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50분간 대화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4박 6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현충원을 찾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함께 묘소 참배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현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정당”

“법사위 권한 벗어나는 정책적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26일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직회부를 주요로 해달라는 청구는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현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본회의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월21일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기각했다.

5월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기각했다.

이 요구안들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법사위가 국회법 86조 규정대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했는지였다.

현재는 방송3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 회의록 내용에 의하면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법 86조3항의 ‘이유 없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사위의 심사 지연에는 여전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힘 혁신위 구성...친윤 박성중 의원·2000년대생 대학생 등 12명

수도권 전현직 다수...여성 7명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12명의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 인선안을 의결했다. 지난 23일 임명된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하면 혁신위는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위에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박성중(재선·서울 서초을) 의원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윤

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지냈으며 계파색이 없긴 하지만 친 윤계로 분류된다.

전직 의원 중에선 검사 출신인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전현직 의원들이 포함된 것은 서울 강서구정장 보궐선거 이후 불거진 수도권 위기를 의식한 인선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선화 동국대 WISE캠퍼스 보건의

료정보학과 겸임교수,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소희 변호사도 포함됐다.

이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임장미 마이넷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교수, 최안나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송희 전 대구 MBC 앵커, 2000년대생인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7명으로 구성돼 성별 안배가 고려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율 32%...2주만에 3%p 하락

NBS...민주 31%·국힘 3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2%, ‘잘못하고 있다’는 58%였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3%p

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p포인트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1%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0%, 정의당 3%,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3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2주 전 조사보다 2%p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p포인트 내렸다.

정당 호감도는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은 32%, 정의당은 19%였다. 관련 직전 조사인 지난

4월 대비 민주당 호감도가 5%p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동등이었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0%,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조사됐다. 2주 전과 비교해 ‘정부·여당 지원론’은 3%p포인트 내렸고 ‘정부·여당 견제론’은 1%p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포인트다. 응답률은 1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1997 테린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테린인드스트리(주)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